사고 분류·기한 계산 기준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JJ로지스(가상, 3자물류·화물운송, 센터 6곳)

적용: 이 자료의 계산·분류는 교육용 운영 규칙이다. 일반 택배의 일부 멸실·훼손 통지 안내를 참고하되, JJ로지스의 3자물류·화물 계약 전체에 법정기한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배상·책임·법적 기한은 담당자가 계약별로 확인한다.

기준 시각: 2026-11-06 09:00 한국시간. 남은 날은 목표 날짜에서 기준 날짜를 뺀 달력 날짜 차이다. 시간 단위 잔여량이 아니다.

파손: 수령일이 있는 건만 수령일에 14일을 더해 교육용 통지 검토일을 만든다. 수령 당일은 0일로 계산한다. 실습은 휴일 연장을 하지 않는다. 이는 법정 기간 계산이나 통지 유효성 확정이 아니다. 파손 접수만으로 통지 완료로 보지 않는다.

분실 의심: 실제 미수령이므로 수령일·14일 날짜를 만들지 않는다. 최초 접수일에 1일을 더한 내부 확인 목표일을 쓴다(가상 운영 목표, 법정기한 아님). 전부 분실 확정 여부도 확인 필요다.

파손 수령일 누락 또는 유형 미정: 날짜를 추정하지 말고 기한 확인으로 남긴다. 이 5건은 매일 우선 확인하며 여유에 섞지 않는다.

긴급도: 남은 날 음수=검토일 경과, 0=오늘, 1~2=임박, 3 이상=여유, 날짜 미정=기한 확인. 서로 다른 기한 종류를 합친 운영 분류이며, 경과가 배상 불가를 뜻하지 않는다.

중복·책임 구간·통지 점검

교육 영상 시연용 가상 자료 | JJ로지스(가상, 3자물류·화물운송, 센터 6곳)

정렬: 검토일 경과→오늘→임박→여유→기한 확인. 같은 묶음은 목표 날짜, 사고번호 순서. 기한 확인 5건은 별도 확인 목록에도 복제하여 놓치지 않는다.

중복: 사고번호·운송장·같은 사고 내용이 모두 같을 때만 묶는다. E19→C003, E20→C015, T07→C007. 27행-중복 3행=24건. 원문번호를 모두 보존하고 날짜 충돌은 확인 필요로 둔다.

책임 구간: 인계기록에 두 지점 기록이 있는 C001~C009만 센터 보관·간선 이동·최종 배송을 추정한다. C010~C024는 확인 필요. 손상 위치만으로 책임자·과실을 확정하지 않는다.

담당자: 센터별 담당표의 담당 가~바를 배정한다. 최종 결정자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통지: 고객의 사내 접수와 송하인의 운송인에 대한 통지 발송을 구분한다. 송하인, 통지 상대, 발송 시각, 접수번호 또는 발송 증빙은 전 건 미확인이다. 통지 초안은 발송하지 않는다.

예: C003 수령 2026-10-23 → 통지 검토일 2026-11-06 → 남은 날 0. C005 수령 2026-10-24 → 2026-11-07 → 1일. C013 최초 접수 2026-11-04 → 내부 목표 2026-11-05 → -1일.

실제 약관의 일부 멸실·훼손 통지는 받은 날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전부 분실 의심에 수령일을 꾸며 넣거나 통지 검토일을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